Šu

- □□

정보

개요
곡명: Šu, 생황과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작곡가: 진은숙 (Unsuk Chin, 1961–)
장르: 단악장 협주곡
작곡 시기: 2009년
세계 초연: 2009년 8월 28일, 도쿄 산토리 홀. Wu Wei 생황,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 , Kazuyoshi Akiyama 지휘.
위촉: Suntory Hall, ZaterdagMatinee, Los Angeles Philharmonic, Philharmonie Essen 공동위촉
출판: Boosey & Hawkes

Šu 는 생황을 낯선 음색 하나로 전시하지 않고, 그 악기가 숨을 압력으로 바꾸고 여러 관을 동시에 울리는
방식을 협주곡 전체의 원리로 삼는다. 독주와 관현악은 주도권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흉내 내고, 그림자처럼 반사하며, 어느 순간 하나의 음향 몸체로 합쳐진다. 제목의 이집트 공기 신은 줄거리의 주인공이 아니라, 숨과 공간이 음악을 조직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표지다.

생황에서 출발한 작곡
생황은 여러 개의 관을 한 사람이 불어 지속음과 화음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자유리드 입악기다. 따라서
독주자는 단일 선율만 노래하지 않고, 한 음을 붙잡은 채 음색을 흔들거나 여러 음의 울림을 겹친다. 진은숙은 이 물리적인 소리 생산을 관현악으로 확대해, 독주 악기와 반주가 분리된 전통적인 협주곡 구도를 느슨하게 만든다.

작곡가는 어린 시절 산에서 멀리 들려오는 한국 생황의 소리를 경험했고, 이를 “먼 소리를 향한 갈망 ”이라는 이미지와 연결해 설명했다. Šu 의 독주 악기는 중국 생황이므로 , 한국 생황을 들은 기억과 중국 악기를 위한 현재의 작품을 같은 악기의 역사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개인적인 청각 기억은 작품의 출발점이고 , 실제
협주곡은 Wu Wei의 현대적인 연주 가능성과 만남 속에서 완성되었다 .

제목과 협주곡의 관계
Šu 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공기를 상징하는 신의 이름이다. 작품은 신화 속 사건을 묘사하지 않지만, 생황의 숨과 관현악의 압력, 소리와 소음 사이의 경계를 하나의 물리적 이미지로 묶는다. 넓은 공간에 흩어지는 잔향과 순간적으로 밀집하는 타격음이 교대하면서 , 공기가 정지와 운동으로 바뀌는 듯한 시간 감각이 생긴다.

전통 협주곡에서 독주자와 관현악이 경쟁한다면 , 이 곡에서는 위장 ·모방 ·변형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관현악은 생황의 그림자와 메아리가 되기도 하고, 독주와 섞여 하나의 소리를 만들기도 하며, 갑자기 독주자를 압도할 듯한 집단적 힘으로 돌진하기도 한다. 협주곡의 드라마는 승패보다 소리의 경계가 언제 사라지고 다시
생기는지에 놓인다.

소요 시간과 편성 표기
소요 시간: 약 20–21분. Boosey는 21분, 작곡가 인터뷰는 20분, IRCAM은 19분으로 안내한다.
독주: 생황.
관현악: 플루트 3, 오보에 3, 클라리넷 3, 바순 3, 호른 4, 금관, 다종 타악기, 피아노, 하프, 현악군.

세부 편성은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다. Boosey의 현재 대여 정보는 트럼펫 4, 트롬본 3, 튜바 2, 타악기 4명과 현악 12.12.10.10.8을 적고, IRCAM은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1, 타악기 3명과 현악 12.12.10.8.8을 제시한다. 하프 표기 여부도 다르다. 이 차이는 작품의 두 판본을 뜻한다고 확인된 것이 아니라, 기관별
카탈로그와 파트 배치 표기의 차이로 남아 있다.

타악기에는 피아노 내부 현, 튜블러 벨, 비브라폰, 빈자사라, 대나무 차임, 자바 징, 귀로, 큰 작은북, 큰 탬버린, 일본 사원 종, 큰북, 탐탐이 포함된다. 서로 다른 재료의 짧은 충격과 잔향이 생황의 지속음 주변에서 음향의
표면을 계속 바꾼다.

단악장 구조: 정적에서 변형된

정적으로

1. 숨과 소음의 경계

시작에서는 생황의 지속음과 다성적 울림이 공간을 채운다. 독주자는 전통적인 주제를 곧바로 제시하기보다
한 음의 압력과 미세한 음색 변화를 들려주고, 현악 하모닉스와 얇은 목관, 하프와 피아노가 그 주변을 확장한다. 작은 소리와 잔향이 교차하면서 , 청자는 선율이 생기기 전의 음향 조건을 먼저 듣게 된다.

2. 네 차례의 상승
리듬적 운동이 생기면 독주 생황의 패턴이 네 번에 걸쳐 더 높은 음역으로 솟는다. 각각의 상승은 같은 구절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높이와 밀도, 관현악의 개입 정도를 바꾼다. 네 단계가 쌓이면서 전통적인 악장 구분 대신 단악장 안의 에너지 단위가 형성된다. 반복적 추진에서 사물놀이의 영향을 떠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 있지만, 작품을 사물놀이의 직접 인용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3. 준카덴차와 혼돈

준카덴차에서 생황은 지속적이고 엄격한 리듬을 이어 가고, 관현악은 준즉흥적인 패턴과 짧은 타악의 끼어들기로 응답한다. 작은 음향과 색채가 빠르게 번쩍인 뒤 총휴지가 나타나며, 스트레토가 점점 혼돈과 소음의 영역으로 밀려간다. 이 과정에서 독주자는 관현악 위에 떠 있는 영웅이 아니라, 집단의 힘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그 힘에 둘러싸이는 중심이 된다.

4. 변형된 회귀

폭발적인 투티가 잦아들면 저음의 흔들리는 음이 남고, 생황은 시작 부분의 동기를 다시 맡는다. 처음으로 돌아온 듯하지만 동일한 모양은 아니다. 관현악의 반사와 타격을 거친 뒤 생황의 음형이 더 가볍고 멀어진 모습으로 되돌아오며 , 음악은 공기 같은 잔향 속으로 가라앉는다 .

독주자와 관현악이 만드는 하나의 악기
진은숙은 인터뷰에서 독주 생황과 관현악을 하나의 가상적인 초악기처럼 합치려 했다고 설명한다. 이 생각은 생황이 여러 관을 동시에 울린다는 물리적 특성에서 출발한다. 관현악의 목관은 생황의 숨을 모방하거나
그림자로 되돌려 보내고, 현악 하모닉스와 하프는 그 울림을 빛처럼 분산한다. 금속성 타악은 같은 공기를 갑자기 단단한 충격으로 바꾼다.

이때 관현악은 배경 반주로 머물지 않는다. 소그룹이 독주와 겹칠 때는 생황의 내부 공명처럼 들리고, 전체 합주가 밀려올 때는 독주자의 호흡을 시험하는 외부 압력이 된다. 협주곡의 긴장은 독주 악기가 얼마나 오래 앞에 서 있는지가 아니라, 소리가 어느 순간 개인의 숨인지 집단의 숨인지 구분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

위촉과 초연의 자리
Suntory Hall을 중심으로 ZaterdagMatinee, Los Angeles Philharmonic, Philharmonie Essen이
공동위촉에 참여했다. 2009년 8월 28일 도쿄 산토리 홀 세계 초연에서는 Wu Wei가 생황을 연주하고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Akiyama의 지휘로 연주했다. 같은 해 10월 9일에는 Walt Disney Concert Hall에서 Gustavo Dudamel과 Los Angeles Philharmonic이 미국 초연을 맡았다. 두 공연은 독주자는 공유하지만 지휘자와 오케스트라는 다르므로 하나의 초연 기록으로 합치지 않는다.

초연 프로그램은 Chin의 다른 작품과 20세기 음악을 함께 배치해, 생황을 전통적 이국성의 표지보다
현대음악의 음향 실험 안에 놓았다. 작품의 제목이 신화에서 왔더라도, 실제 음악은 특정 신의 서사보다 호흡과 공간의 변화에 집중한다.

주요 자료

- Boosey & Hawkes, Šu
- Boosey & Hawkes, □□□ □□□
- IRCAM, Šu □□ □□□□
- Suntory Hall, MUSIC TODAY 21 □□□□
- Wu Wei, □□ □□
- Melbourne Symphony Orchestra, Šu □□□□